

# 피부를 위한 비밀 병기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소홀함이 없는 세심한 손길이다. 그래서 물었다. 피부 좋다고 소문난 그녀들의 편애를 받고 있는 제품과 뷰티 팀은 과연 무엇인지. 에디터/송사은

## 브라이팅 + 수분

자극을 받으면 쉽게 기립고 두드러기 나뒀 빨개지는 피부라 함격점을 받은 제품은 제법 오래 사용하는 편이다. SK-1 '셀루미네이션 에센스'도 그런 제품. 워낙 예민해 자외선차단제도 잘 안 바르는데 아침저녁으로 토너를 바른 뒤 이 제품을 2~3번 겹쳐 발라준다. 오히려 잡티도 잘 안 생기고 피부톤도 화사해지는 편. 화이트닝이라기보다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톤이랄까? 또 하나는 피부가 칙칙할 때 쓰는 SOS 아이템인 엠브리올리시스의 수분팩. 아침에 바르고 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가 금세 촉촉하고 명랑해지면서 화장도 잘 먹고 유분기도 쉽게 들지 않아 좋다. -지현정(모엘)



Embryolisse '엠브리올리시' 수분팩 3만9천원



SK-1 '셀루미네이션' 에센스 14만3천원

## 보습 + 진정

피부톤이 쉽게 칙칙해져 화이트닝이나 주름 케어보다 피부 순환에 신경 쓴다. 일 년 내내 변함없이 사용하는 건 록시앙 '임오르멜' 라인의 페이스 오일인데, 여름에 사용해도 보루지가 잘 안 올라오는 데다 마치 화이트닝 케어를 받은 것처럼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게다가 요즘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쉽게 붉어질 때 바르고 지면 거짓말처럼 피부 톤이 차분해진다. 얼마 전 이 오일과 공황이 잘 맞는 제품을 발견했는데 에이슬의 비티민 성분 페이스 켈을 바르고 이 오일을 바르면 피부에서 광이 날 정도. -박소영(제일모직 2부문 마케팅팀)



L'Occitane '베리 프레스스' 리제네레이팅 컨센트레이트 9만원



Aesop 'B' 트리플 C 밸런스 젤 12만7천원

## 모공 + 트러블

어름이면 눈에 띄는 모공과 붉은 해드, 기립씩 출몰하는 포포자름. 다스리기 위해 달콤한 페이스 팜플 활동한다. 밀크 타입의 제품으로 세안을 마친 후 이것 하나만 마사지하듯 비르고 자는 데 얼굴에 은은한 광이 나면서 모공도 한결 좁아진 느낌. 보루지가 나려고 할 부위에 살짝 발라주면 신기하게 가라앉기도. 더위에 화끈거리는 피부를 잠재울 때는 아벤느의 미스트를 화장실에 등록. 뿌린 뒤 얼굴에 5~10분간 올려놓는데, 피부의 붉은기도 가라앉고 간헐적인 증감도 사라진다. -김나영(보테가 베너터 홍보팀)



Avene '오베르말 드 아벤느' 150ml, 1만6천원



Darphin '아로마틱' 유리따방함 10만원

Ken's 미디나잇 리카버리 컨센트레이트 6만5천원



## 수분 + 재생

전형적인 건조 피부인 덕에 수분 보충에 깡깡한 편. 한여름인 요즘도 사람에게 빠져 있는 제품은 카렐의 에센셜 오일인데, 보습은 물론 재생까지 해결하는 데 이만한 것이 없다. 평소에는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 방울 떨어뜨려서 바르고, 세안 후 얼굴이 많이 당긴다 싶으면 에센스를 바른 위에 얹게 한 걸 발라준다. 여름날 햇빛을 과하게 쬐었을 때나 피지 때문에 유분기가 많이 도는 날에는 시트 마스크를 활용하는데, 눈가에 마스크를 한 장 더 붙일 수 있는 시세이도 제품을 선호한다. 눈가에 마스크를 붙이지 않고 볼 부위를 이중으로 케어해 굳이 화이트닝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눈가가 절로 환해지니까. -조예경(WE클러닉 원장)

## 수분 + 탄력

어름이면 맘과 피지가 늘어나 얼굴에 제품이 미끈거리면서 남아돌기 마련. 이 느낌을 싫어해서 에센스나 크림 대신 미스트와 에센셜 오일을 조합해서 쓴다. 아베다의 미스트 토너를 얼굴에 뿌려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로즈 에센셜 오일을 발라주면 얼굴에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고 쏙 스며든다. 촉촉함은 말할 것도 없고 로즈 에센셜 오일 덕분에 페이스 라인도 한결 올라붙은 듯 탄력이 느껴진다. 또 여름엔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이 담겨 있는 미스트로 열기가 느껴질 때마다 뿌려준다. -송자연(다자이나)팀



Aveda '보타니칼 키네틱스' 토닝 미스트 3만8천원



Aveda '로즈 에센셜 오일' 4만8천원